

인화소식

협회 임직원 수재의연금 기탁

지난 8월초 서울·경기북부 및 강원지방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거나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깊은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저 협회 임직원이 조그마한 정성으로 모금한 일금 일백만원을 지난 8월 26일 동아일보사에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하였다.

한국셀석유(주) KOFAX '98 참가신청

한국셀석유(주)(대표 : 김동수)는 오는 9월 25일(금)부터 9월 29일(화)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되는 KOFAS '98 "제8회 국제 자동차 정밀 기기전"에 참가한다. 산업자원부 및 한국방송공사가 후원하고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셀석유(주)는 고품질의 절삭유(M. W. F) 및 Maintenance-Free용 그리스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특히 윤활관리 소프트웨어인 Lubriplan 2000 및 오일분석 시스템인 셸 모니터(Shell Monitor)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LG-Caltex정유(주) 보너스카드 서비스 실시

LG-Caltex정유(주)(대표 : 허동수)는 지난 7월 1일부터 계열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 개개인의 구매습관, 구매량 등에 따라 보다 차별화되고 고객지향적인 혜택과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마케팅(DBM)의 기반 구축과 이의 본격 실행을 위해서 「LG정유보너스카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LG정유보너스카드는 전국 LG칼텍스정유 계열 가맹주유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고객 및 소유차량의 간단한 명세를 기록, 제출하면 즉시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LG-Caltex정유(주) 레저용 디젤차량 엔진오일 개발

LG-Caltex정유(주)(대표 : 허동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가용 차량(RV : Recreational Vehicle)운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레저용 디젤 차량 전용 엔진오일(제품명 : D-RV44)을 개발, 지난 7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LG-Caltex정유(주) 임직원 직위 호칭 변경

LG-Caltex정유(주)(대표 : 허동수)는 이사회 기능 강화와 사외 이사제 도입으로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른 이사회 이사와 집행 임원 간 호칭 구분이 필요해짐에 따라 CU임원의 국/영문 호칭을 지난 8월 1일부터 변경했다.

국문호칭 중 전무이사는 전무로, 상무이사는 상무로, 이사/이사대우는 상무보로 바뀌었다. 영문호칭 중 부회장은 Vice Chairman & CEO로, 수석부사장과 부사장은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SEVP)로, 전무는 Executive Vice President(EVP)로, 상무는 Senior Vice President(SVP)로, 상무보는 Vice President(VP)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번 변경으로 과장 이상 사원의 영문호칭도 적절하게 변경 사용되는데, 선임부장과 부장은 Senior Manager로, 차장과 과장은 Manager로 변경되었다.

LG-Caltex정유(주) 미국안전협회의 산업안전모범상(AWARD OF MERIT)수상

LG-Caltex정유(주)(대표 : 허동수)의 전 주유소와 윤활유공장이 지난 '94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무재해 운영을 이룩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안전협회(National Safety Council)로부터 산업 안전모범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석유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폭발, 환경오

유행소식

염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했음은 물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최종 수요처에 차질없이 적기에 공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기적으로 각종 소방훈련,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자기기계설비 사랑운동', '혁신21운동' 등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점검과 환경/안전의식 고취를 꾸준히 실천, 생활화 해온 결과이다.

또한 미국안전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산업 안전 콘테스트에서도 '93년 1위를 차지한 이래 현재까지 저유운영부문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 안전협회는 미연방정부를 대신하여 미국내 각종 안전규격을 정하고 안전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세계적으로 그 권위와 조사의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의 선진공업 각국이 안전 규정의 모델로 삼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K그룹 최중현 회장 별세

SK그룹 최중현 회장(향년 68세)겸 전경련 회장이 지난 '98년 8월 26일 워커힌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최회장은 '29년 수원에서 출생, 서울대 화학과 3년 재학중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대학 화학과와 시카고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이같은 인연으로 최근까지 시카고대학 동창회 한국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83년 전경련 부회장을 거쳐 '93년부터 고인이 될때까지 전경련 회장을 3연임하며 5년간 전경련을 이끌면서 국내에 시장경제의 이념을 전파하는데 심혈을 쏟아왔다.

또 석유에서 섬유에 이르기까지 그룹을 수직계열화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국내기업인 최초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주창해 한국경제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등의 매우 큰 공적을 남기셨다.

- 발인일자 : '98년 8월 30일
- 장례예식 : 가족장
- 장 지 : 수원 가족묘지

SK(주) 아스팔트 일본시장에 진출

SK(주)(대표 : 남창우)가 해외 아스팔트 제품으로는 최초로 일본시장에 진출하였다. SK는 일본 아스팔트 판매대행사인 TKC사 (Technical Know-how Co. LTD. : Shoreki주식회사의 지주회사)와의 협조하에 일본 建設省 산하기관인 建材試驗센터로부터 아스팔트에 대한 '해외 건설자재 품질심사증명'을 획득, 지난 7월부터 동사 상표로 완제품 아스팔트를 수출하였다.

SK 관계자는 이번 품질증명 획득을 계기로 올해에는 '97년 대비 250% 증가한 3만톤을, '99년에는 6만톤을 수출하는 등 대일본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며, 특히 일본 아스팔트 공급자인 9개 정유사들이 동부지역에 밀집하여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울산지역과 근접해있는 큐우슈우, 오키나와 등 일본 서부, 남부지역 시장을 TKC사의 공급망을 공동 사용하는 등 전략적 제휴하에 집중 공략, 향후 점진적인 시장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아스팔트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걸러지고 남은 무거운 유분으로 형성된 부산물로, 국내 시장은 IMF의 여파로 수요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위축되어 있고, 아시아 경제위기로 전체 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중국, 대만 등으로의 수출시장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시장 진출은 신규 시장확보와 아스팔트 품질의 대외적 인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일본에 포장용 아스팔트를 수출하여 왔으나, 건설성으로부터의 품질증명이 없어 반제품이나 OEM방식(주문

유행소식

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중간 생산업자들에게 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품질인증을 계기로 향후 아스팔트 대일본 수출시 SK상표로 나가게 되며, 중간 생산업자들 뿐 아니라 생산설비가 없는 판매업자들에게도 직접 판매가 가능해져 수출물량의 큰 폭 신장의 기대되고 있다.

SK(주) 『완전무인 셀프 주유시스템』 개발

SK(주)(대표 : 남창우)가 국내 최초로 별도의 결제창구 없이 고객이 주유금액을 현장에서 직접 각종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완전무인 셀프주유시스템』을 개발, 지난 7월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의 셀프주유는 별도의 결제창구를 두어 주유금액을 정산했지만 이번 개발에 성공한 『완전무인 셀프주유시스템』은 고객이 직접 주유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결제창구가 필요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365일 24시간 어느 때나 셀프주유가 가능하며 또한 기존의 셀프주유시 고객이 결제를 위해 결제창구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완전무인 셀프주유시스템』은 선불식 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를 원할 경우 주유 전에 주유할 금액을 지폐주입구에 주입하면 주유기는 자동으로 작동되며 고객은 주입금액만큼 기존의 셀프주유방법으로 주유하면 된다. 또한 환불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입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유했을 경우 차액만큼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원할 경우 먼저 시스템의 카드리더기에서 카드를 읽힌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드에 대한 사용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가득’, ‘정액’, ‘정량’ 중원하는 버튼을 누른 후 셀프주유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유하면 된다.

7월말까지 서울 이수교차로에 있는 반포

주유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8월부터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

SK(주) 주유소에 뉴스전광판 설치

SK(주)(대표 : 남창우)가 주유소에 뉴스전광판을 설치,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들에게 주유도 하고 뉴스도 볼수 있는 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뉴스전광판은 회전식으로 되어 있으며 고객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전광판을 통해 주유소 주변도로의 교통상황, 기상정보, 국내의 주요 뉴스 등을 Real Time으로 제공하고 있다.

SK(주) 국내최초 저온접착성 수지 개발

SK(주)(대표 : 남창우)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온접착성 수지를 자체기술로 개발에 성공, 상품화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SK(주) 대덕기술원 화학연구소(소장 : 朴相勳)에서 '96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수입제품보다 접착력을 10%이상 향상시킨 고기능 접착성 수지이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과 같은 합성수지를 금속, 유리, 목재등에 접착시킬 때 사용되는 수지로 합성수지가 갖고 있는 우수한 성형가공성, 위생안정성, 내열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여 송유관, 가스관 등의 강관코팅이나 알루미늄 복합파이프 등을 제작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접착성 수지는 150℃이상의 고온에서만 작업이 가능하여 온도변화에 예민한 알루미늄에다 폴리에틸렌 등을 접착할 경우 알루미늄이 변형이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한 저온접착성 수지는 접착가능 온도를 30℃이상 낮춘 120℃미만의 온도에서 작업이 가능해져 변형 없이 가공이 가능하게끔 하여 전자재료 쓰이고 있는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의 제작에 널리 이용될 수 있다.

유행소식

SK(주) 물류시설 대폭 확대

SK(주)(대표 : 남창우)가 전남, 강원 서부 지역의 원활한 유류공급을 위해 총 314억 원을 투자하여 목포저유소 신설 및 원주저유소 확장 등 저유시설을 대폭 확장했다.

지난 '96년 2월부터 184억원을 들여 전남 목포시 대불공단내 1만평 부지에 건설한 목포저유소는 휘발유 2만배럴, 저유황 경유 6만배럴, 등유 3만배럴 등 총 13만 배럴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장시설로써, 9기의 적재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선박계류 및 제품하역을 위한 6천톤 규모의 돌핀식 공용부두와 시간당 262k0를 출하하는 해상 출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목포저유소 완공으로 전남지역에 광주저유소(25만배럴), 광양저유소(11만배럴), 순천저유소(1만배럴), 강진저유소(8천배럴)등 총 50만8천배럴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지난 '97년 4월부터 130억원을 들여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5만4천 배럴의 저유능력을 가진 원주저유소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7만5천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확장으로 저유용량이 휘발유 2만배럴, 저유황 경유 6만3천배럴, 등유 3만3천배럴 등 총 12만9천배럴로 늘어남으로써 강원 영서, 경기 및 충북 일원에 원활한 유류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목포저유소 신설 및 원주저유소 확장을 완료함으로써 전국 23개 지역에 위치한 저유소(저유물량 : 520만배럴)를 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물류시설의 확충과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쌍용정유(주) 사무용품 재활용 캠페인 마무리

쌍용정유(주)(대표 : 김선동)는 “비영업성

경비 50% 줄이기”에 적극 호응하고 사무실 환경정리 정돈을 위해 총무/비상계획팀이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벌인 사무용품 재활용 캠페인을 벌였다.

개인이나 부서에서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품 등을 반납받은 결과 47개 품목 총 1,618개의 물품이 들어왔다. 이를 구입 단가로 환산하면 5백79만여 원에 달한다.

이수화학(주) 품질관리 본임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이수화학(주)(대표 : 윤신박) 윤활유 생산부의 (GTS본임조)가 전국 품질본임조 경진대회 울산지역 예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울산지역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4일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 울산지역 예선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화학등 총6개팀이 출전하여 이수화학과 LG화학 울산공장 본임조가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대회 출전자격을 획득하였다.

전국대회는 9월중 개최될 예정이며 우수한 성적을 얻은 본임조는 11월초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국 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다.

동아특수화학(주) 전준식 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6대 부회장 취임

동아특수화학(주) 전준식 사장은 지난 6월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6대 부회장에 취임하였다.

길상에너지(주) 대표자 변경

폐윤활유 회수·처리업체인 길상에너지(주)의 대표자가 지난 7월 20일부로 황건익에서 강석중으로 변경되었다.